

대 이어 66년 간 쓴 ‘김봉호 일기’ 문화재 등재 추진

광산구, 지역문화 연구 사료적 가치 높아 영구 보존 나서
일제 강점기 내용부터 근현대사까지 기록한 83권 분량

광주 광산구가 66년간 자신의 일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해 왔던 김봉호(2018년 작고)씨의 일기를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 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하남동에 있는 김봉호 가옥(1946년 건축)을 2000년 5월 시지정 문화재자료 제25호로 등록하면서 김씨가 작고하기 전까지 매일 쓴 일기가 주목을 받았다.

일제 강점기 시대 내용부터 지역의 근현대사까지 폭넓게 기록된 83권 분량의 김봉호 일기는 당시의 생활 풍속사를 엿볼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광산구는 45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김봉호 일기를 체계적으로 기록화하는 사업을 지난달 발주했다. 광산구는 이번 기록화 사업 추진을 통해 김봉

호 일기를 영구 보존하고, 지역사를 다룬 문화재로 등재한다는 방침이다.

1952년부터 2018년 작고하기 전까지 매일 작성된 김봉호 일기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생활상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일제 강점기 공출미 이야기를 비롯한 논물대기, 경지정리 과정 및 단골 이발소 이발 요금, 농사일을 거든 인부의 품삯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하루 일과 과정에 일이 많을 때는 공책 한 장을 채워 낱알이 기록했으며, 아날 때면 몇줄로 끝내기도 한 김봉호 일기의 짧팍함은 공문서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매매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 살도록 한 땅에 부과된 세금을 놓고 김봉호씨는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보여주며 소상하게 설

명해 정상처리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 같은 김봉호 일기는 생존시 개인이 작성한 가장 오래된 일기로 한국기네스 인증서까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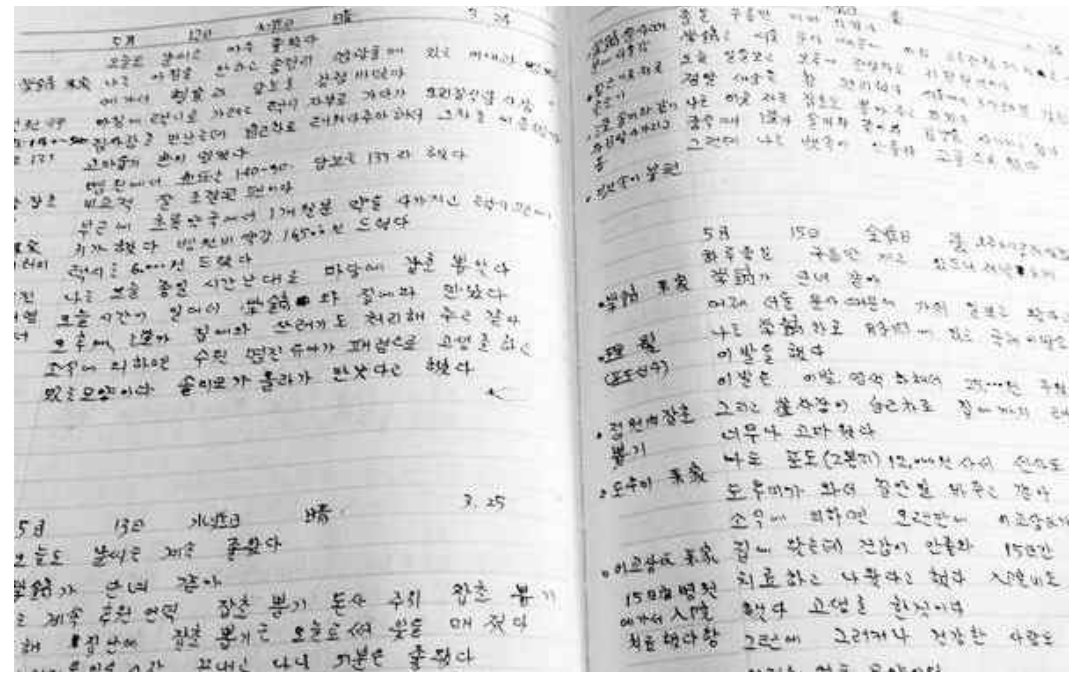
특히 김봉호 일기는 대를 이어 작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전에 아들에게 일기를 물려주고 싶다는 뜻을 밝혀 아버지의 권유로 아들인 김형(73)씨가 2014년부터 일기를 쓰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뒤늦게라도 김봉호 일기의 열실을 방지하고 온전하게 전승함으로써 지역 문화연구 및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를 발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지정 문화재자료로 등록된 김봉호 가옥은 1990년대 후반, 광산구 하남 일대 대규모 택지 개발 추진에 따라 뜯겨나갈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김봉호씨가 직접 문화재 지정을 의뢰하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2000년 5월 문화재로 등재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1952년 10월24일부터 2018년 10월23일까지 6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쓴 김봉호 일기

소상공인 ‘친절 미소’ 위해 투명 마스크 지원

광산구 경제백신회의, 안심식당 우선 배부·200여 개는 선착순



광주 광산구 지역경제 거버넌스인 광산경제백신회의 회원들이 소상공인의 ‘친절한 미소’를 위해 투명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 지역경제 거버넌스인 광산경제백신회의가 소상공인의 ‘친절한 미소’를 위해 투명 마스크를 지원한다. 14번째 경제백신이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마스크 착용으로 소상공인들이 손님 응대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백신 11탄인 안심존 프로젝트로 지원했던 안심식당 230여 곳을 7~8월 우선 지원하고, 8월에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을 통해 광산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명 마스크 200여 개를 선착순 배부할 계획이다.

투명 마스크는 입모양이 잘 보여 손님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친절한 인상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척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광산경제백신회의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서자 투명 마스크 생산 업체도 “투명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다”며 마스크를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 받은 마스크는 학생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 특수학교 교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투명 마스크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사장님들의 친절한 미소도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소통의 장벽을 넘어선 오늘의 결실이 선한 영향력으로 더욱 퍼져나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광산경제백신회의는 민·관·산·학·연·종교 등 광산구 45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 희대대출, 문화예술연대 광산아트마켓, 안심존 프로젝트 등 13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경제백신)을 추진해 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공공 이익 위해 적극 행정

광산구, 우수공무원 3명 선발



김영관 팀장

광주 광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 3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광산구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 추천, 구민 추천을 받아 14명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벌여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한 뒤 지난 1일 ‘광산구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을 선발했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김영관(환경 6급·정소행정과) 팀장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버려진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GO GO 챌린지, 매립 쓰레기 줄이고!, 지구환경은 지키고!)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180톤(약 45만개)의 아이스팩을 재사용해 1억 6000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냈으며 2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수상을 받은 문성현(행정7급·기업경제과) 주무관은 골목상권 활성화(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밖에 장려 안정환(시설7급·도시계획과) 주무관은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발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사례로 우수공무원에 선발됐다.

광산구는 이번 선발한 우수공무원 3명에 대해 근무성적 실적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신속한 백신 접종 체계 구축

외국인 접종 통역 서비스도

광주 광산구가 세밀하고 꼼꼼한 행정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국내 도입 백신 종류가 다양해지자 광산구는 선제적으로 위탁의료기관의 안전접종체계 강화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고, 백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일어나는 백신 관리 부주의 및 오접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백신별 예진표를 색상으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광산구는 또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백신 이상반응에도 신속 대응하고 있다. 철저한 백신 관리를 위해 광산구 예방접종

센터는 당일 사용할 백신수량을 초저온 냉장에서 직접 꺼내 1대1로 전달하고, 계획된 익일 사용량에 따라 3명이 한 조를 이뤄 화이자 백신을 해동 후 희석하는 방식으로 백신의 ‘콜드체인’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28일부터 3주간 예방접종센터 재정보기기간을 활용해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접종을 위한 현장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저조한 외국인주민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처도 섬세함과 세밀함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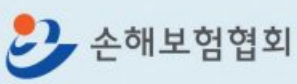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1만7000여명으로

광주의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다문화 자녀를 제외한 1만3000여 명이 접종 대상자인데 지난 9일 기준 접종을 한 외국인주민은 29.5%에 불과하다. 언어장벽,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실 등이 낮은 접종률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광산구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친화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외국인주민의 접종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평일 야간과 토요일에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외국인 명예통장 등을 배치해 접종 전 과정에서 필요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